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20. 2.

| 선교 나눔

원목자로서 산다는 것은...

고대 구로 병원에 원목수녀로 소임을 하는 김 데레사 수녀입니다. 첫해는 원목 소임을 받으며 소임지 적응을 하고 원목에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분주히 지나갔습니다. 봉사자들을 알아가고 대학 병원이라 이곳저곳 여러 부서들과 병동들과 원목실의 업무를 익히며, 배우는 마음으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처음 환자들을 만나 먼저 이야기를 건네는 것이 많이 어색하였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리라 믿었는데 지금도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환자 방문을 하려면 마음의 준비를 굳게 해야 하고 이름과 세례명령, 병력을 숙지한 후 감실 앞에서 한참을 기도한 후 병실을 방문합니다.

얼마전에 교황님의 책에서 한 부분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책 중에서 옆집의 성인들 중 한 문장입니다.

“한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노(老)수도자들”

예전에 35년도 전 제 수도생활 초창기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한국을 방문하셨던 때입니다. 수녀원에 들어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외출이 자유롭지 않을 때였는데 청원자로서 같은 그룹과 함께 여의도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신자와 성직자, 수도자. 무엇보다 교황님을 지척에서 뵈 수 있음에 우리는 모두 기뻐했고 웃음이 한가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 분이 저희를 보며 “여러분들 무척 행복해 보이네요, 함께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하고 인사하며 지나가셨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 나이 들면서 잃어가는 것 중의 하나가 웃음, 미소인 것 같습니다. 특히 병원이라는 사도직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푸근하고 행복한 미소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재칠시(無材七施), 즉 돈 없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자비로움 중에 다음 것들이 있습니다.

화안시 - 화색을 피고 환한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

언 시 -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진심어린말로 상대를 대하는 것.

심 시 - 마음을 열고 상대의 괴로움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

안 시 - 호의를 담은 눈으로 상대를 온화하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는 것.

찰 시 - 묻지 않고 상대의 맘을 헤아리는 것.

나머지 둘은 궁금하시면 무재칠시를 찾아보시면 됩니다.(호호호...)

제가 천주교 수도자이지만 몸에 익혀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세상 어느 곳이나 삶과 죽음은 늘 가까이 있지만 병원은 그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삶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죽음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과정에 수반되는 고통과 아픔과 이별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것, 그리고 이 마음을 매일 매일 새롭게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한지 벌써 한달이 훌쩍 지났네요.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금총(?)이 한가득히 내리길 기원합니다.

- 김애경 데레사.fmm

Ⅱ JPIC 글 나눔

지구의 병, 인간의 병

“우리 지구가 병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생태환경위기를 두고 이와 같이 염려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지구의 병보다도 오히려 우리 인간의 병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지구도 그 영향으로 고통을 받게 된 것이지요.

랄프 메츠너, 폴 셰퍼드, 토마스 베리 등과 같은 학자들은 생태환경 문제와 인간의 심리를 연결 지었습니다. 이들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의 행동 이면에는 그 행동을 심 일으키는 정신적, 심리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연세계와 관련한 인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합니다.

먼저, 자연과 교감을 나누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자폐증”으로 설명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그 소리, 혹은 그 울부짖음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채, “번영”이라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편리함이나 풍요로움만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중독”입니다. 현대인은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중독”은 결국 지구와 인간을 다 같이 파멸로 몰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중독”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해로운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술이나 마약처럼 말입니다. 지금 당면한 기후비상도 바로 이 “화석연료 중독”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뿐 아니라 소비중독이나 산업경제성장에 대한 강박증도 우리 사회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니, 기술 중독도 있네요. 기술 중독은 소비 중독과 맞물려 “어얼리 어답터”(early adopter)들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새로운 상품, 특히 스마트 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신상품이 나오면 남들보다 먼저 사서 써보아야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이런 태도가 반드시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쓸 만한 물건을 버려두고 무조건 새로운 상품에 집착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는 “집단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일상이었던 자연과의 교감을 현대인은 잊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신비스럽고 두렵게만 느껴졌던 자연현상, 천둥, 번개, 천체 변화 등을 지금은 낱낱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연은 더 이상 신비스러운 그 무엇이 아니라, 인간이 활용하고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경외심, 신비감 등은 “미개한” 것 혹은 “미신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인간은 “다중 인격장애” 혹은 “분열증”을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면에서는 자연에 대한 동경을 느끼면서도 외적인 행동은 여전히 자연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병든 지구를 살려야겠다고 인식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생태문제를 부르짖으면서도 일상에서는 이와 전혀 무관한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일부이긴 하겠지만,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히말라야는 엄청난 쓰레기로 몸살을 앓습니다. 자연을 좋아하는 나의 방식을 과연 그 자연도 좋아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태심리학자인 랄프 메츠너는 “인간은 지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안에 있다.(not on the earth, but in the earth)”고 했습니다. 지구 안에서, 지구와 같은 운명으로 살아가는 나는 과연 건강한지, 혹은 어떤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 이영주 스텔라.f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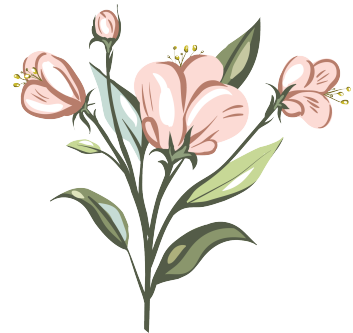
어머니의 새해 강령

- 박노해

설날이 오면 어머니는
어린 우리 형제자매를
장작불에 데운 물로 목욕을 시킨 후
문기둥에 세워놓고 키 금을 새기면서
작년보다 한 뼘이나 더 커진 키를 보며
봐라, 많이도 자랐구나
어서어서 자라나거라
함박꽃처럼 웃으며 기뻐하셨다

설날이 오면 어머니는
어린 우리 형제자매를
깨끗이 빨아 다린 설빔으로 갈아 입힌 후
등근 상에 얹혀놓고 떡국을 먹이며
일 년 내내 부지런히 일해서 모아낸
저축통장을 펴보이며 봐라
우리 집 희망통장이 많이 늘었다
올해도 열심히 공부해 진학하거라
햇살처럼 웃으며 기뻐하셨다

설날이 오면 어머니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형제자매에게
키가 얼마나 더 자랐는지 키 금을 재지도 않고
돈을 얼마나 더 모았는지 통장을 펴보지도 않으시네
올 설날 아침에도 등근 상에 모여 앉아
떡국을 나누어 먹이시며
올해도 많이 웃고 건강하거라
욕심내지 말고 우애를 키우며 겸손하거라
옆도 보고 뒤도 보며 화목하거라
또 한 해를 살아갈 새해 강령을 선포하시네



수녀회 소식 - 종신서원식



2020년 2월 1일 하느님의 크신 은총 안에서 복음적 권고에 따라 마리아의 전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김소원 글라라, 이진아 엘리사벳, 조란 마르타, 지영 세라피나 수녀가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미사는 작은형제회 관구장 호명환 가롤로 신부님의 주례로 25명의 신부님들이 공동 집전하였습니다.



서원 예절 후 관구장은 수도회 총장이신 프랑스와즈 마씨 수녀님의 파견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총장은 김소원 글라라 수녀를 일본 관구로, 조란 마르타, 이진아 엘리사벳, 지영 세라피나 수녀를 한국 관

관구의 복음화에 봉사하도록 파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일생을 봉헌한 4명의 수녀들을 수도회에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관심과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날의 봉헌을 새롭게 다지며 앞으로의 수도여정 또한 충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도장,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국민은행 362737-04-000395

농협 100072-51-060834

* 후원금이 아닌 미사예물이나 봉헌금은 다음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협 352-1499-1313-23 예금주 : 김계숙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65-8174

E-Mail : fmmssp@hanmail.net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1월1일 ~ 1월31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재)고려문화재단 강경아 강미현 강승완 강신연 강연호 강지우(왕효준) 고대완 고월순
고유연 고재영 고희숙 공해용 구옹회 구윤정 구인순 권순익 권영오 금부동 금창호 김경미
김광기 김광자 김귀선스테파니아 김남기 김덕칠 김도상 김동현루가 김두현 김두환(김철형)
김미리 김미애자 김민규 김병수케냐 김상규 김상률 김상연 김상태 김셋별 김선옥 김성미
김성환 김수경 김수자세실리아 김숙자만나 김순철 김시윤 김애자 김연진 김영옥 김영주
김영덕프란치스코 김영재(허갑수) 김옥림 김옥주 김용수 김용자(윤소라) 김용주 김용준
김원진 김인회 김정숙마리아 김정웅(김명신) 김정주 김준희 김지혜 김진선 김진숙알데군다
김진식 김춘자루갈다 김춘자안나 김태욱 김해자 김현숙(최지명) 김혜겸 김호생 김홍양
김희재 나숙희 나정순 남봉원 노미경 노봉근 노석심 노유리 노정애 류순자 문경희 문성식
문준식 민정웅 박말순 박민선 박병옥 박병주 박성길(정은아) 박성현 박수인 박순옥
박승민 박양순 박원서 박은정 박인호 박재용 박정선 박정순(임현서) 박정식 박정연
박찬순 박태분 박홍권 박화자 박희수 박희순 방진 배수정 배운숙 배철희 백미자 백성대
변태식 삼성동성가정나눔회 서춘자 서태진 서현수 성상모 성영주 성옥이 소재록 손순덕
손은주 손정례 송비아 송영희 송정애 송혜경 신승일 신승현 신주화 심귀선 아가맘2호
안미령 안양금 양미경 양영자 양윤석 양종한 영적가족9기 오숙자 오영희 오옥형(최민규)
오지연 우영희 운남동빈첸시오 원ENG 원선주 원세경 유병춘 유시연 유영재 유은분
유은정 유춘성 유혜정헤레나 유희숙프란치스 윤경숙(제일) 윤규현 윤명희 윤문섭
윤미숙파우스티나 윤봉수 윤순자 윤순희 윤정희 윤한희 이갑수 이관훈 이광희 이근태
이기향 이기혁 이남순 이대례 이동세 이동준 이동현 이명순(이선영) 이명혜 이미자 이민희
이상문 이선경젼마 이성엽 이성원바오로 이성혜(유주영) 이연신 이연실 이연재 이옥자
이용길 이윤신 이은정 이은주 이은향 이인숙 로사 이정란(최윤) 이정숙데레사 이정원 이정준
이정숙마리아 이정숙수산나 이종옥 이준우 이지인프란체스카 이태금 이항남 이항남 이해일
이혜숙 이홍식 이희량 인용석 임수남 임승옥 임지원 임호 장민정 장세옥 장영표 장우영
장원태 장은미 장현아 재속프란치스코회야음 전순자 전영관 전충엽 정경원 정경필 정동락
정명국 정미영정민정 정복순 정부강 정성민 정소영 정숙자 정승한 정영숙 정옥희 정재영
정진명 정향숙젼마 정혜경 정희파키스탄 조명숙 조상위 조혜영 조희공 조희공 조희무
주)가나스틸 진숙인 진신아 최규범 최두진 최성순 최숙규 최순애 최연희 최영애 최옥자
최원단 최원철 최인석 최일순 최지은 최향미 최혜정 추수옥 추영숙 추종현 태계남 박진
평화와나눔 하옥경 한기훈 한순옥 한순희 한영미 한옥선 한은희 한진경 한효정(권오현)
허순자 허정자 현경미 홍말숙 홍명숙 홍미자 홍민선 홍민희 홍성란 홍세아 홍수봉 홍승희
홍은숙 홍익기 황경희 황달수 황인복 황정숙